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충청북도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협약식 참여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12일 '충청북도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발대식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비자원을 비롯해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 청주경실련 등 시민단체, 청주상공회의소, SK하이닉스 등 경제계, 유원대, KBS 청주총국 등 민간부문 15개 대표 등 총 25개 기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해당 기관 대표들은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과 정착에 공동으로 협력해 범도민운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과 기존 관주도의 반부패 청렴 문화 운동을 도민이 제안하고 평가하는 도민 중심의 수평적 자율적 반부패 청렴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충북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의원으로서 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부패방지 정책 심의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충북지역과 한국소비자원 간 협업을 통한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에도 많은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은 청렴·반부패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확대를 위해 '2018 충청북도 청렴한마당' 행사 중 하나로 진행됐다. 협약식 이후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한 강연 및 토크 콘서트가 이어졌고, 부대행사로 청렴 부스 운영,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성안길 일대 가두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충북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청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지역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내 청렴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충북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는 「충청북도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8.13. 제정)에 근거해 구성·운영되며, 지역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경제계, 학계·언론 등 시민사회 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안전한 정수기 시장 조성을 위한 정수기사업자 정례협의체 CEO 간담회 개최

한국소비자원은 9월 14일(금) 정수기사업자 정례협의체 12개 사* 대표들과 함께 그간의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안전한 정수기시장 조성 의지를 다지기 위한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수기 안전·위생 문제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출범한 이 협의체는 발족과 동시에 마련한 「사업자 자율안전규약」에 따라 '이물저감 3개년(2017~2019년) 추진계획'을 세우고 정수기 위생관리 체계 개선에 힘써왔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이희숙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이제 깨끗함을 넘어 내 가족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원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안전한 정수기 시장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협의체는 올 7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정수기 온수가 '14세 이하 어린이 화상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됨에 따라 오는 4분기 내 관련 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 (주)교원, (주)바디프랜드, SK매직(주), LG전자(주), (주)원봉, (주)위닉스, 청호나이스(주),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한국암웨이(주), (주)현대렌탈서비스, (주)현대렌탈케어 (이상 개나다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9월 4일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환경부 서울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회용품 줄이기 등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통해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소비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관련 실태조사·연구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대국민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와 함께 대국민 참여를 위한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UCC·카드뉴스 공모전을 실시한다. 또한 서울·부산·광주·대구·인천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현장캠페인도 실시한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대국민 캠페인에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네이버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환경부와 상호 협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활성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모두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